



등록번호	의회사무국 ~2116
기안일자	2017. 4. 4.
등록일자	2017. 4. 4.
공개구분	대국민공개

의정담당	의회사무국장	의회의장			
자태인					
협 조	곽종배 의원 정현배 의원 양해진 의원				총판등 이억만 0/13.2m 총판등 홍기동 0/13.2m

공무국외 연수결과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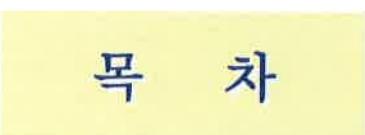
연 수 구
의회사무국

- 2017년도 연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

공무국외 연수결과 보고



의회사무국



목 차

I . 연수 목적	4
II . 연수개요	4
III . 연수단 명단	5
IV . 주요연수일정	6
V . 연수 현황	9
1. 위해 시 현황	9
2. 인천홍보관 운영	12
3. 장사계 문화시설 현황	15
VI . 연수결과	18

2017년도(상반기)

공무국외 연수결과 보고서

**- China -
(중화인민공화국)**

I

연수목적

- 세계화, 지방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선진국의 문화, 관광, 교육 등의 현장 견학을 통해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습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새로운 제도와 시책을 발굴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인천광역시와 중구와의 자매결연도시로 협약 예정중인 위해시청 및 의회를 방문하여 각종 자료수집과 현안사항들을 연수구 행정에 접목시켜 구민을 향한 정책 인프라 제공을 하고자 함.
- 또한, 의원 간 소통과 화합으로 의정 역량을 결집하여 생산적 의회운영을 통한 선진의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데 있음.

II

연수개요

- 일정 : 2017. 03. 24(금) ~ 2017. 03. 28(화) (3박 5일간)
- 연수국가 : 중화인민공화국(중국)
- 연수인원 : 5명 【의원 3명, 의회사무국직원 2명】
- 소요예산 : 11,500천원(개인부담 별도)
- 주요 방문일정

연수국가	대한민국	중국	중국	중국	중국	중국
방문일자	03. 24(금)	03. 24(금)	03. 25(토)	03. 26(일)	03. 27(월)	03. 28(화)
도착지	인천공항 출발	위해 공항 도착	연태공항출발 장사공항도착	장가계시 시청방문		인천공항도착
기관방문 등		위해시 위해시한인 경제단		장가계관광 시설벤치마킹	장가계관광 시설벤치마킹	

III

연수자 명단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1			정 현 배	
2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의원	양 해 진	
3			곽 종 배	
4	의회사무국	수행원	홍 만 동	
5			이 억 만	

IV

연수내용

중점 연수내용

구 분	개 요	주 요 내 용
위해 시 및 한인경제단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지 : 위해 시는 인천광역시와 중구가 자매 결연을 위한 협약예정에 있으며 연수구도 또한 시와 발맞추어 자매결연을 협약 할 예정으로 상호 우호증진과 협력을 추진하고 경제단방문을 통한 긴밀한 유대감을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계공무원의 브리핑 교육 및 사회복지 정책 등 구행정 접목할 우수사례 파악 대주민 행정서비스 운영실태 기타 관심사항 질의 응답 사회복지시설 방문 기타 시설 현황 파악 등 * 경제추진현황 및 교류협력
인천홍보관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지 : 위해시와 경제, 문화 등 교류를 위한 전초기지인 홍보관을 통한 연수구와 위해시간의 각종 교류 및 협력 사업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 현황 및 각종 자료 수집 협력 방법 강구

구 分	개 요	주 요 내 용
장가계 등 관광시설 벤치마킹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문취지: 천문산 및 천자산 주변의 문화관광 벤치마킹을 통한 연수구 문화와 접목방안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가계 관광시설 방문 관광용품 판매 상점 시찰 관광홍보용품 개발 및 주변관광 인프라 점검 관광상품화 수요대책 강구 연수구 현실에 접목추진

1. 공식일정

① 위해 시청 방문

- 방문 일 시 : 2017. 03. 24(금) 14:00 ~ 15:00
- 방문 장 소 : 위해 시청 및 시의회
- 참 석 자 : 연수단 일행 전원
- 기념품전달 : 시계
- 관련사진

위해시청 및 시의회



② 위해 시 소재 인천 홍보관 방문

- 방문 일시 : 2017. 03. 24(목) 15:00 ~ 16:00
- 방문 장소 : 위해 시 소재 인천홍보관 방문

- 참석자 : 연수단 일행 전원
- 기념품전달 : 시계
- 관련사진

위해 시 인천홍보관(1)



위해 시 인천홍보관(2)



③ 장가계 관광시설 벤치마킹

- 방문 일시 : 2017. 03. 26(일) ~03. 27(월) 00:00~ 00:00
- 방문 장소 : 장가계 대협곡
- 참석자 : 연수단 일행 전원
- 관련사진

장가계 대협곡(1)



장가계 대협곡(2)



□ 연수 내용 현황

<위해시 현황>

1. 일반현황

- 위치 : 산동반도 최동단에 위치, 동쪽으로 한반도와 마주하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연대시와 인접
 중국 도시로서는 한국과 가장 인접한 도시임(370Km)
- 행정구역 : 1區, 3市
 - 環翠區, 文登市, 榮成市, 乳山市
- 면적 : 5,436km²
- 인구 : 252.23만 명
- 특징 : 2003년 유엔으로부터 "세계에서 거주하기에 가장 적합한 도시"로 선정
 - ※ 한·중 수교전인 1990. 9. 16. 양국을 연결하는 첫 항로 개통
(위동항운 5,000톤급 골든브릿지號)

2. 경제현황 (2008년)

- GDP : 1,780.35억 위안(전년대비 12.1% 증가)
 - 1차 산업 132.28억 위안(4.1% 증가), 2차 산업 1,088.56억 위안(11% 증가), 3차 산업 559.51억 위안(16.5% 증가)
 - 1차, 2차, 3차 산업 구성비 : 7.43 : 61.14 : 31.43
 - 지방재정수입 : 180.63억 위안(전년대비 15.6% 증가)
 - 고정자산 투자 : 926.14억 위안(전년대비 23.7% 증가)
- 대외교역액
 - 수출입 총액 118.05억 달러(전년대비 10% 증가)
 - 수출 74.55억 달러(전년대비 9.6% 증가), 수입 43.5억 달러(전년대비 10.8% 증가)
- 외자유치
 -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 건수 : 26건
 - 실제이용 외국인 투자액 5.26억 달러 (전년대비 31.3% 증가)

3. 산업현황

o 풍부한 자원

- 해안선 길이가 1,000Km에 달하며, 중국내 최대 수산물 생산지 중 하나. 새우, 해삼 전복, 조개 및 각종 어류 등 300여종의 해산물 생산
(2008년 수산물 총생산량 205.64만 톤)
- 산동성내 양곡, 땅콩, 과일의 주요 산지. '교동땅콩', '위해사과', '영성황도', '유산 양배' 등의 특산물이 유명
(2008년 식량 총생산량 100.13만 톤, 땅콩 26.43만 톤, 과일 75.1만 톤)
- 화강암의 질이 좋으며 매장량도 많음. '석도홍', '문등백', '유산흑' 등의 화강암은 국내외에서 높은 평가

o 주요산업

- 5대 지주 산업: 자동차, 전자정보, 기계전자, 섬유의류, 식품의약
(각종 업체 수 16,000여 개)
- 목공기계의 중국시장 점유율은 60%이상, 건축기계 중국시장 점유율은 20%, 어구 판매량은 미국시장의 18% 위해 시는 가공제조업기지, 관광레저기지, 해산물 및 농산물 수출기지 등 3대 기지 건설을 추진 중

o 주요개발구 : 국가급 개발구(3개)

- 위해火炬고기술산업개발구(1991.3 승인, 면적 39.2km²)
- 위해경제기술개발구(1990.10 승인, 면적 36km²)
- 위해출구가공구(2000.4 승인)

성급(省級) 개발구

- 영성경제기술개발구
- 문동경제기술개발구
- 유산시金嶺경제기술개발구
- 위해환경경제기술개발구
- 영성石島灣여행휴가구
- 산동성석도국제漁貨무역구
- 영성天鵝湖여행휴가구
- 영성銀灘여행휴가구

o 기타

- 항구 : 2008년도 화물처리량은 8,455.4만 톤, 컨테이너 60만 TEU. 한국의 인천, 군산, 평택, 일본의 요코하마, 고베, 오사카, 도쿄 및 동남아, 유럽, 미국 등지의 주요 항구와 연결

- 공항 : 인천, 부산과 국제항로 개통, 매주 30여 편. 국내선은 북경, 상해, 하얼빈, 제남 등 도시 연결
- 철도 : 청도, 북경, 무한 등 도시를 연결. 전국 각지 화물 직행 운수 가능
- 도로 : 청도, 연대 등 주변도시와 고속도로 연결. 청도까지는 자동차로 2시간 30분소요

4. 한국과의 관계 (2008년)

- o 한국 투자 현황
 - 투자프로젝트 수: 114건 (누계 1,392건)
 - 계약 투자액 : 1.72억 달러
 - 실제 투자액 : 2.6억 달러
- o 대 한국 교역액 : 45.12억 달러
 - 대 한국 수출액 : 22.32억 달러(수출총액의 29.9%차지. 전년대비 4.4%증가)
 - 대 한국 수입액 : 22.80억 달러(수입총액의 52.4%차지. 전년대비 2.5%감소)
 - 주요 투자 기업 : 삼성프린터, 삼성중공업, 금호아시아나 골프장, 삼진선업, 세원전기
- o 위해-한국 도시 간 자매결연
 - 위해시는 94.3월 한국 여수시와 자매결연하고 부천시, 서울시 용산구와 우호협력관계 구축
 - 유산시는 하남시와 자매결연
 - 영성시는 전라남도 완도군, 부천시, 통영시, 충청북도 옥천군, 경기도 평택시와 우호 협력관계
 - 문등시는 인천시 부천구, 천안시와 우호협력관계
 - 環翠區는 인천시 시중구와 우호협력관계
- o 정기 항공 및 여객선박편
 - 항공편 : 위해-인천(주 28회), 위해-부산(주3회)
 - 여객선 : 위해-인천(주 3회), 석도-인천(주 3회), 영성(용안)-평택(주 3회)
- o 한국관련 유적지
 - 위해 영성시 석도진 소재 “법화원”은 신라시대 해상왕 장보고 대사가 설립한 사찰로 현재 장보고 기념관 및 기념탑 소재. 장보고기념관은 한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2007.4월 적산그룹이 5,000만 위안을 투자하여 건립

5. 주요인사

- o 王培庭 (Wangpeiting) 당서기
 - 1953.1월 출생

- 산동성 비현 출신
- 산동농학원 간부연수반, 산동성당학교 현당서기 연수반
- 비현 부현장(1987), 부서기(1988), 현장(1989), 서기(1992), 위해시 당 조직부장(1997), 부서기 겸 조직부장(2001), 위해시 부서기 겸 기율위 서기(2002), 위해시 시장(2007), 위해시 당서기(2008)
- o 孫述濤 (Sun shutao) 시장
 - 1965.1월 출생
 - 산동성 고밀시(유방) 출신
 - 산동농업대학 임학과, 남경임업대학 자원환경학원 삼림경영학 석사, 임학 박사
 - 산동농업대학 임학원 원장(1997), 산동농업대학 임학원 원장 겸 하택시 시장보조(2000), 하택시 부시장(2001), 산동성 조직부 부부장 겸 산동성간부학원 원장(2007), 위해시 부서기 겸 시장(2008.2)

<인천홍보관 운영>

중국시장 전초기지 역할을 할 인천(IFEZ)관이 현지에서 공식 개관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한중 FTA 지방경제협력 시범지구인 중국 웨이하이시 위고광장에서 인천(IFEZ)관 개관식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개관식에는 인천광역시장, 인천시의회의장,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장후이(張惠) 웨이하이시장 등 양국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시민들의 왕래와 비즈니스 활동이 활발한 웨이하이시의 중심지역에 위치한 인천(IFEZ)관은 1,448m² 규모로 주중 인천(IFEZ)의 경제무역 대표처 기능을 맡아한다.

인천관은 △인천과 IFEZ 홍보관 △상설·기획·온라인 전시관 △영상 회의와 수출·투자 상담 및 비즈니스 지원 회의실 △행정사무공간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인천(IFEZ)관은 한중FTA체결, 인천(IFEZ)-위해시 지방경제협력강화 합의서에 따라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웨이하이관에 이어 중국 웨이하이에 인천(IFEZ)관의 문을 열었다.

개관식은 경제구역청장 경과보고, 유공자 감사패 수여, 인천광역시장 기념사, 장후이 웨이하이시장축사, 양도시 지방경제협력강화 업무협약, 인천(IFEZ)관 시찰 순으로 진행됐다.

협약서에는 △인천도시공사와 웨이하이도시개발투자유한공사 간 ‘도시개발 및 미래전략사업’ 발굴 등 도시발전전략수립 부문에서도 협력기반을 확대 해 나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관식에 맞춰 인천(IFEZ)관에 물품을 전시한 14개 인천기업과 매칭상담을 신청한 17개 중국기업이 1:1 인차이나 상담 회를 갖고 상품수출입 및 물류에 대한 상담도 이뤄졌다.

인천(IFEZ)관은 인천시 및 유관기관, 기업들이 참여하고

상호 지원하는 형태의 복합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이다.

주요업무는 한국기업의 상품 전시와 상담,

인천의 도시 홍보, 투자와 산업협력, 관광 및 사회

문화 교류 등 대중국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인천관에는 총4명(수석대표 5급 1명, 부대표 6급 1명, 현지인력 2명)의 인력이 투입돼 기업 상품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외국기업 및 투자자 유치, 교류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웨이하이시 인천홍보관은

올해 12억원의 예산을 들여 1천448㎡(438평)의 홍보 및 상품전시관,

상담실 등의 시설을 갖췄고 어울 화장품, 우성아이비 등 지역 58개

업체의 제품이 전시돼 있다.

해당 업체들은 6개월에 1회 이상 수요조사 후 정기적으로 교환될 예정이다.

특히, 수출기업 지원 사업 추진과 지방경제협력의 실현을 위해 기업 해외진출 및 투자지원에 역량이 있는 기업지원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집적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대상기관으로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청도 무역관과

해외 차이나 테스크, 인천의료관광안내센터와 우선적으로 업무협력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시장은 “인천관은 중국시장 개척의 전초기지 역할을 담당하면서 중국 내수시장을 위한 기업·상품 홍보 등 수출판로 개척이 기대된다”고 했다.

이어, “인천홍보를 통한 브랜드가치 제고, 관광객 및 투자유치를 위한 한중FTA 지방경제협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는 한중FTA 1주년과 인천(IFEZ)관 개관을 기념해 인천광역시, 위해 시, Kotra 공동 주관으로 22일부터 2박3일간 송도컨벤시아에서 한중 FTA 지방경제협력 포럼을 마련한다.

포럼에는 한국의 전자통신연구원과 중국의 거시경제연구원이 참여해 한중FTA 지방경제협력 시범 구 추진상황 및 협력방안, 한중 전자상거래 크로드의 운영방안, 한중 서비스무역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인천광역시에 따르면, 한·중FTA 시범도시 지정 및 인천-위해 지방 경제협력 협약 체결에 따라 협약한 「산동대한가수출입유한공사」는 2014년 설립된 중국 산동성 최초의 O2O(Online to Offline)기업으로, 온라인 쇼핑몰 「대한가」와 위해 시에 오프라인 체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 상품을 주로 판매 하고 있으며, 250여개 브랜드의 5,000여개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인천시는 전자상거래 업무협약을 통해 「駐中) 인천(IFEZ)경제무역 대표처」에 전시되어 있던 인천 기업 상품을 위해서시 대한가 체험센터 및 온라인 쇼핑몰(DAHANJIA.COM)에 추가로 입점시키고 QR 코드화를 통해 홍보(Offline) 및 제품 구매(Online)를 촉진함으로써 중국 시장을 적극 개척할 계획이다.

“매년 규모가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에 인천기업 상품이 성공적으로 진출하고, 이를 통해 인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물류산업이 확대되기를 기대 한다.”고 밝혔다.

<장가계 문화시설 현황>

○ 중국 호남성 장가계시의 무릉원은 국가에서 지정하고 보호하는 국가급 자연풍경구로 수려함과 웅장함, 기이함을 골고루 갖춘 곳이다. 동양에서는 옛부터 속세에는 없는 아름다운 이상향을 무릉도원이라 했다. 그곳의 모습을 알 수는 없지만, 장가계의 산수를 보고 나서는 혹 옛 선인들이 이곳을 일컬어 무릉도원이라는 말을 만들어 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사람들은 흔히 장가계를 계림과 비교한다. 언뜻 보기에 산세의 모양이 비슷하고 선경(仙景)의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계림이 석양과 더 잘 어울린다면 장가계는 안개 깐 새벽녘의 느낌에 더 맞다고 할 수 있다. 또 장가계는 계림과 비교할 수 없는 웅장함과 기묘함을 갖고 있다. 장가계는 중국 호남성 서북부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로 도시 전체가 중국 제일의 국가 삼림공원 및 여행 특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지금도 계속해서 개발, 건설, 발전 중이다. 대부분이 산림으로 수려한 봉우리와 청량한 물, 기이한 동굴이 어우러져 원시상태의 경치와 생물생태 환경을 보전하고 있다.

장가계는 아직 국외에서의 직항 노선이 없고 장가계 공항이 국내선 전용 공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장가계를 가기 위해서는 우선 북경이나 무한 등 대도시를 거쳐 중국 국내선으로 갈아타야만 한다. 국내선 비행기 대신 기차나 장거리 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장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비교적 힘든 여정이 될 것이다.

장가계에 도착하면 수많은 여행사들의 제의를 받게 된다. 장가계를 모두 보는 테는 3-5일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들과 적절한 거래를 통해 여행사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개발 이후에 장가계 시내와 공원 주변에 현대시설의 호텔들이 새로 지어져서 숙박 문제에 있어서도 별 어려움이 없다.

무릉원(武陵園)이라 불리는 장가계의 풍경은 핵심 3부분과, 장가계 시내 풍경, 장가계 주변 풍경으로 크게 나뉜다. 장가계 시내는 주로 상업과 주거지역이지만 토가 풍정원, 수화산관, 보광선사 등의 볼거리들이 있고, 시내 주변에는 천문산 국가산림공원, 모암하표류풍경구, 구천동 풍경구, 양가계 풍경구 등의 관광지가 있다. 하지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고 또한 국가에서 관광특구로 지정한 곳은 장가계 풍경의 핵심을 이루는 세 곳이다.

장가계 국가삼림공원, 천자산자연보호구, 속계곡자연보호구가 그것인데 먼저 장가계 국가삼림공원에는 황사폭포, 금편계곡이 유명하며 천자산 자연보호구에는 하룡공원, 서호, 십리화랑이 속계곡 자연보호구에는 항룡동, 백장협, 보봉호이 유명하다.

이곳의 관광은 보통 장가계 삼림공원에서 시작된다. 공원의 문으로 입장장을 하면 서늘하고 청명한 기운으로 약간 몸서리가 치진다.

또 부부 암이라고 하는 두개의 봉우리가 관광객들을 맞고, 곧 고개를 들면 빽빽한 삼림과 각각 다른 모양의 3천개에 달하는 기봉을 볼 수 있다. 무릉 원의 핵심부분인 이곳은 중국 최초의 국가삼림공원으로 지정되었고, 천연동식물원이라고 불릴 만큼 산림과 기봉, 협곡, 원시 생림이 한 테 모여 있다. 삼림공원 안에는 또 황사채, 금편계곡, 비파 계곡, 원가계 등의 유명 관광지가 있다.

장가계 삼림공원에서 동남편 방향으로는 삭계곡 자연보호구가 있다. 삭계를 따라 동서로 길게 펼쳐져 있는데 무릉원에서 가장 볼거리가 많은 곳이라 할 수 있다. 이곳은 기봉뿐만 아니라 속계호, 보봉호, 보봉폭포 등 수경(水景)이 많아 여유롭게 산책하기에 좋다.

사해 대봉 림의 숨 막히는 기봉들과 보봉호의 아늑함을 지나면 기이하고 신비한 항룡동의 마술을 보게 된다. 이름처럼 용이 살았던 곳이라 해서 용궁이라고도 하고 그 안에 천개의 석주와 석봉 등이 들어서 있다.

삭계곡의 여유로움을 지나면 또 다시 숨막히도록 빽빽한 기봉으로

가득한 천자산자연보호구를 만나게 된다. 삵계곡의 서북쪽에 접해 있는데, 수려함과 기이함, 야성미의 삼박자와 다른 어느 곳보다 천연한 자연스러움을 골고루 갖추고 있다. 또, 이곳은 대략 황룡천, 봉서산, 노옥장, 다반탑, 석가담의 5경구로 이루어져 있는데 보편적으로 황룡천, 봉서산, 노옥장, 다반탑을 거쳐 석가담, 서해를 지나 삵계곡으로 하산하는 여정으로 둘러보게 된다. 보통 무릉원의 풍경을 이루는 이 세 가지 핵심풍경으로의 유람은 이러한 순서로 마치게 된다. 중국을 여행하다 보면 끝없이 앞으로만 펼쳐져 있는 땅덩어리에 질릴 때가 있다. 그래서 잠시 고개를 돌리려 하면 아무리 유명한 산이나 호수라 해도 중국인의 상업적인 때가 묻어있는지라 답답한 마음을 해소시키기에는 부족하다. 이럴 때 장가계를 찾는다면 어느새 그런 갈증이 깨끗이 사라진 것을 느낄 수 있다. 무릉원을 국가에서 국가급 삼림공원으로 지정하고 보호하는 것은 무릉원의 천연함이 그 안의 어느 풍경보다도 가장 큰 보물이기 때문이다. 기봉과 기봉에 둘러싸여 형성된 호수, 신미한 동굴. 이 모든 것이 자연그대로 만들어진 곳이기에 무릉 원은 신이 만들거나 신이 살았던 이상향(鄉), 곧 무릉도원이라 믿고 싶은 하늘의 선물이다.

연수 결과

- 향후 인천광역시와 중구청 및 연수구와 자매결연 예정도시의 방문으로 각종 자료 수집과 현안 사항 파악으로 연수구에 맞는 행정과 사업 추진을 모색하는 기회와
- 위해서 내에 설치 운영 중인 인천 홍보관을 통해 경제 인프라 구축과 연수구의 특산품을 판매·교류를 통한 상호 이익증대를 도모 하기 위한 국외연수가 되었음.
- 장가계 등 관광 문화와 대규모 천연 관광지의 시설 견학 및 벤치마킹을 통해 우리 구의 관광 상품 개발과 관광 수요 창출을 개발하고 우리 구 현실에 맞는 관광 정책의 적극 추진을 마련하는 창구로 활용하게 되었음.